

높아지는 학점...떨어지는 평가 신뢰도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시행된 절대평가로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진 때문이다.

4월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2021학년도 과목별 A학점 이상 취득 비율은 47.9%다. 전년도(54.7%)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3.7%)과 비교하면 여전히 학점이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졸업 학점 평균 역시 ▲2019년 88.2% ▲2020년 88.9% ▲2021년 89.4%로 지속해서 상승했다. 특히 백분율 점수 90점 이상 100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2019년 39.8%에서 ▲2021년 52.5%로 대폭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학점 과열 현상으로 학점이 주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점 상향평준화로 인해 평가 신뢰도가 떨어져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내에서도 장학 수혜와 다전공/전과/교환학생 합격의 벽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경영학과 20학번 A씨는 “이전에도 장학금을 받거나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이 필요했는데,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많

최근 3년간 졸업성적

	백분율 평균	학점 평균	백분율 90~100점 누적비율
2019	88.2%	3.22	39.8%
2020	88.9%	3.29	46.5%
2021	89.4%	3.34	52.5%

2021 2학기 A학점 전공성적 비율

상위 5개 학과		하위 5개 학과	
무용학부	83.3%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36%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산업학과	83.2%	약학대학 약학과	40.3%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76.8%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41.1%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76.2%	의과대학 의예과	41.6%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76%	경영대학 경영학과	41.8%

최근 3년간 졸업성적 및 2021학년도 2학기 A학점 전공성적 비율

은 학생이 성적을 높게 받는 상황이 부당스럽다”고 밝혔다. 또 “교환학생 선발 기준에서도 면접이 사라지고 성적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치열한 성적 경쟁이 될 것 같다”고

연려했다. 특히 학과별로 A학점 비율 차이가 커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2021학년도 2학기 전공 성적 비율을 살펴보면, A학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무용학부, 문화관광산업학과, 산업디자인학과로 각각 83.3%, 83.2%, 76.8%를 기록했다. 심지어 무용학부, 아동가족학과, 기악과는 가장 높은 학점 인플레이션

을 보였던 지난 2020학년도에 비해서도 A학점 비율이 상승했다.

반면에 한의학과와 약학과, 한의예과는 각각 36%, 40.3%, 41.1%의 낮은 비율로 A학점을 받았다. 무용학부와 한의학과와 A학점 비율의 차이가 47.3%에 이르는 것이다. 의학 계열이 아닌 경영학과 역시 5번째로 낮은 비율인 41.8%를 기록했다.

국제학대에 재학 중인 17학번 B씨는 “학과별로 학점을 주는 비율이 다르고, 그중 국제학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을 받기 어려운 편”이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대체로 학점을 받기 쉬워진 것은 맞지만, 국제학과처럼 학점 비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학과는 학점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학점은 양적 수치이고, 대학이나 학과별로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는 점이 불리하다고 느낀다”고 의견을 밝혔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우리학교는 평가 방식을 완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학사지원팀은 평가 방식과 관련해 내부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사지원팀은 “평가 방식이 달라졌던 것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했다”며 “추후 변동사항에 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학점표준화제도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학생예비군 2학기 재개

이진구 기자 ik6348@khu.ac.kr

오는 2학기부터 학생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예비군 소집훈련은 ▲9월 7일, 8일, 13일 ▲10월 12일, 13일 ▲11월 7일

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 9월 8일에 계획된 훈련은 10월 중으로 변동될 수 있다. 서울캠 예비군연대본부는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여러 학교와 일정을 맞추게 되면서 일정이 산발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도 오는 2학기부터 학생예비군 소집훈련을 다시 진행한다. 다만 국제캠 예비군

연대본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되는 사항은 총학생회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을 이수하면 해당연도 예비군 훈련을 수료할 수 있다.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의 경우, 예비군 원격교육 수료와 한월 여부로 훈련 시간을 공제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예비군 원격교육을 수료했을 경우, 기본훈련 8시간에서 각 2시간씩 공제된다. 또

연도별로 한월씩 1개당 1시간씩 공제된다. 즉, 두 해 모두 예비군 원격교육을 수료하고 한월을 한 학생은 최대 6시간이 공제돼 2시간의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된다.

학생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신·편입생, 복학생, 재학 중인 미신고자는 별도로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예비군 전입신고는 인포21에서 진행할 수 있다. 훈련일은 소속 학과별로 상이하며, 훈련부와 내용은 훈련일 1달 전에 경희

특이나 메일을 통해 공지된다.

한편, 휴학·제적·졸업·수료 시 학생예비군에서 주민등록지 지역예비군 소속으로 전출돼 동원훈련 또는 동원미참습(동미참)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동원훈련은 주거지 인근 부대에 입소해 2박 3일간, 동미참훈련은 1년 중 4일간 하루 8시간씩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1학기를 수료하고 2학기에 전출된 경우, 해당 연도까지 학생예비군으로 인정돼 8시간의 기본훈련만 부과된다.